

혈액투석환자에서 발생한 metformin 유발성 뇌병증 1례

경상대학교 병원 신장내과학교실

서정우 · 김현정 · 박동준 · 장세호 · 김동욱 · 전대홍

A Case of Metformin-induced Encephalopathy in a 62-year-old Man with End Stage Renal Disease and who was on Regular Hemodialysis

Jong Woo Seo, Hyun-Jung Kim, Dong Jun Park, Se-Ho Chang, Dong-wook Kim, Dae-hong Je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Department of nephrology

뇌병증 (encephalopathy)이란 다양한 원인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하여 가역적 혹은 비가역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 원인으로는 약물이나 독소, 감염, 혈관성 질환, 종양, 외상 등이 있으며, 알려진 약물로는 항암제나 면역억제제, 항균제, 환경독소가 있고, 드물게 metformin도 뇌병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저자들은 혈액투석 환자에서 metformin에 의한 뇌병증 1례를 경험하여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환자는 62세 남자로 당뇨병성 말기신부전으로 5년 전부터 주3회 유지 혈액투석 요법을 받고 있었으며, 내원 10일전부터 구음장애 및 걸음걸이 이상과 불수의적인 행동이 나타나 외부병원에서 입원치료 했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환자의 신경학적 검사에서 운동신경 및 감각신경의 장애는 없었다. 뇌의 자기공명촬영을 시행한 결과, T2 조영 영상에서 대칭적으로 양쪽 조가비핵 (putamen)의 조영 증강외에 특이소견은 없었다. 이전에 입원치료를 시행한 병원 기록에서 환자는 약 5주 전부터 매일 metformin 1,000 mg을 복용하고 있었고, 이 병변을 의심할만한 다른 약물 복용력이나, 감염,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metformin 복용을 중단하고, 혈액투석 치료를 지속하면서 환자의 신경학적 증상은 차츰 호전되었다. 환자는 입원 10일째 퇴원하였으며, 2주 후 외래에서 시행한 뇌 자기공명촬영에서 병변의 호전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고, 후유증 없이 혈액투석을 유지 중이다.

metformin은 혈청 크레아티닌이 남성에서 1.5 mg/dL 이상, 여성에서 1.4 mg/dL 이상에서는 처방의 금기인 약물로 특히 신기능 감소시 유산 산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드물게 뇌병증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신부전 환자에서 metformin이 처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겠다.

Key Words : Metformin, 신부전, 뇌병증

Metformin, Renal failure, Encephalopathy